

아시아 금융위기와 IMF

출전 : 『International Workers』

번역 · 박영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동남아시아 통화위기, IMF가 태국정부를 통치하고 있다

1997년 8월 25일

동남아시아의 통화가치 폭락을 맞아 IMF는 지난 주에 태국에 대해 엄격한 요구조건을 담은 구제금융을 결정했다.

일본의 주도아래 IMF는 태국 정부에 대해 15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1994년 멕시코의 폐소 위기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사바티가 이끄는 태국 정부는 일련의 긴급정책을 받아들일기로 했는데 이는 생활수준의 급격한 저하와 실업률의 증가를 야기할 것이다.

IMF의 요구사항에는 1천억바트(31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예산의 삭감과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현재 7%인 부가세를 10%로 인상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가뜩이나 열악한 상황에 있는 복지제도들을 약화시키면서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기업들에 대한 세금은 인하될 것이며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금융부

본의 구조조정은 극적인 형태를 띠지 않았다. 8월 5일 태국 중앙은행은 42개 금융기관들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령했는데, 전국의 91개 금융기관중 58개 회사가 거래를 중단한 상태이다.

이러한 결정은 작년 11월에 '환상의 경제팀'이 될 것을 약속하면서 집권한 사바티 정권에게 즉각 정치적인 위기를 맞게 했다. 어느 누구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혼란에 빠진 예금주들의 인출상태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해 태국 국왕이 직접 나서야 했다.

활동이 중단된 42개의 금융사들이 중앙은행에 지고 있는 부채만 하더라도 21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것조차 태국은행과 금융권이 질머지고 있는 전체 악성부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들이 올해 안으로 갚아야 할 단기채무는 38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금융분석가인 로이 라모스에 따르면 태국의 불량채권은 이미 멕시코 시대 당시의 최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태국 바트화의 폭락

통화위기는 7월 2일 태국 정부가 바트화와 달러간의 연동환율제를 포기하면서 촉발됐다. 이 때부터 바트화는 세계통화시장에서 뚝뚝배처럼 출렁이기 시작했다. 바트화는 23%나 떨어졌고 결국 유사한 경제상태에 있던 이웃 국가들에게도 동일한

연쇄효과를 일으키게 했다.

7월 11일, 낮은 경제성장률과 외환보유고가 낮은 필리핀의 폐소화가 10% 하락했고 주가지수는 22% 떨어졌다.

말레이시아의 중앙은행은 링깃화의 절하를 막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외환의 12%를 동원해야 했고 이자율을 50%나 인상해야 했다. 하지만 7월 14일 정부가 이러한 개입을 포기하자 다시 통화 가치가 4% 떨어졌다.

7월 21일에는 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을 보이고 있던 루피아화가 달아오르기 시작해서 사상 최고치인 5.4%의 가치 하락을 기록했다.

심지어 아시아의 양대 금융무역 중심지인 싱가포르와 홍콩도 난폭한 통화반등의 안전지대일 수가 없다. 홍콩 통화당국은 홍콩 달러를 방어하기 위해 이자율을 올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태국에 대한 IMF의 개입은 태국의 금융제도를 지탱하고 이 지역 전체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IMF가 개입하게 된 이면에는 일본이 있다. 일본 기업들이 이 지역의 경제붕괴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은행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최대 대부자이다. 대출규모는 1천5백억달러로 추산된다. 제조업분야에서도 일본이 최대의 투자자이다. 일본무역협회에 따르면 동남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1997년 중반까지 58억달러에 달한다.

더구나 일본의 금융시스템조차 불안한

상황인데 이들이 안고 있는 불량채권은 지난해 1조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투입된 채권과 투자가 위협받을 경우에는 일본이 심각한 금융과 국을 겪을 지 모른다.

근본적인 무대이동

아시아의 정치지도자들은 통화위기에 대한 책임이 조지 소로스과 같은 외국의 투기꾼들에게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서방의 '정치적인 음모'가 아니라면 동남아시아의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위기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호랑이라고 불리는 동남아시아의 경제는 1980년대 초반에 외국자본, 특히 일본자본에게 제조업분야의 저임노동력 공급기로서 형성된 것이다.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신발과 의류 그리고 완구와 같은 노동집약적인 상품들을 미국과 유럽시장에 수출하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그들의 통화와 미국의 달러화 사이의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외국의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안정적인 수출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였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이라는 더욱 값싼 노동력을 가진 경쟁자의 출현으로 계속 위협을 받아왔다.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도

전에도 불구하고 태국 경제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그럭저럭 고도성장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이 때의 성장을 주도한 것은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투기였다. 바트화와 달러간의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고이자율 정책으로 인해 태국으로의 자본유입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달러화가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 40% 이상 상승한 1995년이 되자 바트화는 더 이상 신뢰도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 11%를 자랑하던 경제성장률은 7-8%로 떨어지게 되었고 향후 2년간은 3-4%로 다시 떨어질 전망이다. 부동산과 주식이격도 하락을 거듭해왔다.

3월에 주식시장이 4년 반만에 사상 최저를 기록하자 태국 당국은 모든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주식거래를 24시간동안 중지시켰다. IMF 총재인 미셸 앙드쉬는 태국이 멕시코의 선례를 밟지는 않을 것이라고 투자자를 안심시키면서도 태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마침내 IMF가 태국 정부의 정책을 제압하기 위해 바트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라는 수단을 구사하면서 개입에 나섰다.

태국의 '경제기적'은 이제 그 나라의 근로대중들에게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업률의 상승과 실질임금의 저하 그리고 빈곤을 심화시키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제 자본들이 더욱 싼 값의 노동력을 찾아 전세계를 뒤지면서 지구표면을 झा어내는 동안에 발생한 대가이다.

‘아시아 호랑이들’의 추락

1997년 9월 13일 토요일

지난 30년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고도성장은 나라에 빠져 있던 영국과 서유럽 국가들에게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다시금 증명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했다. 이른바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비록 억압적인 정치체제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었지만 기적적인 경제성장은 그것을 누그러뜨릴 만큼 놀라운 것이었다. 높은 저축률과 교육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기록해 온 그들의 사례를 두고 월 휴튼과 같은 학자는 앵글로아메리칸의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아시아 모델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몇 개월전부터 기적을 이루어온 동남아시아의 경제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이후 달러에 대비한 태국의 통화가치는 20% 떨어졌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12%, 말레이시아가 9%, 싱가포르가 5%의 통화가치 하락을 겪어야 했다. 8월의 마지막 주에 가서는 주식시장들이 곧 두박질치기 시작했는데 말레이시아는 11%, 태국 10%, 인도네시아 4%, 그리고 필리핀이 17%의 추가하락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의 금융붕괴를 막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의 주도 하에 태국 정부에 대해 167억 달러를 지원해야 했다. 여기에 대해 샤키티 용차

이유 장군이 이끌고 있는 태국 정부는 긴축정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IMF는 1998년 정부 예산에서 1천억 바트(31억 달러)를 삭감할 것으로 요구했고 공공요금과 부가가치세를 10%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이것은 실업을 늘리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지금도 예소한 규모에 있던 복지시스템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태국의 바트화는 달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은 500억 달러에 달하는 단기 외채를 상환해야 할 판이다. 특히 금융부문의 경우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91개의 금융사 중 58개 회사가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IMF는 이렇게 부너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앞당겨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금융전문가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통화가치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IMF의 구제금융도 태국이 실제로 필요한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태국 정부가 IMF가 요구하는 개혁조치들을 실행하기에는 너무도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진단한다.

아시아 호랑이들의 경제위기는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어떤 지역이나 국가

혹은 대기업에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이들의 붕괴는 1994년 12월에 정부의 대부금 상환능력을 의심한 자본철수로 40%의 환율상승을 경험했던 멕시코의 경우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지원과 이에 따른 요구조건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멕시코 경제는 성장률을 7%나 줄이지 않을 수 없었고 적어도 백만명 이상의 실업자를 발생시켰으며 노동자들의 임금소득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멕시코의 사례는 지난 몇 년 동안 자본주의가 경험했던 일련의 금융재난의 하나일 뿐이다. 분석가들은 이제 다음 붕괴의 후보지로 브라질을 지목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뉴욕과 런던의 증시가 폭락할 가능성도 지목하고 있다.

세계화(globalisation)의 영향

지난 20년 동안 생산의 전지구적인 통합이 진행되면서 엄청난 변화들이 있어 왔다.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금융기구들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경제는 국가에 기반한 국민경제와 정부의 경제정책을 완전히 잠식해 왔다. 임금과 복지수준은 이제 세계시장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모든 형태의 국내적인 보호장치들이 제거되었으며 초국적 기업들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옮겨갈 수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임금수준과 조세제도들을 선택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경제는 그동안 저임노동력을 무기로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을 늘려왔고, 외국자본 특히 일본자본의 유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들의 통화는 달러에 연동되었으며 이는 수출가격을 낮추고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자국의 산업은 국가의 정책 차원에서 보호되고 지원을 받았다.

통화압박이 가중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엔에 대한 달러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터였다. 그러나 이번의 위기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아닌 그들보다 훨씬 낮은 임금으로 경쟁하고 있던 중국의 성장에 있었다. 8월 11일자 비즈니스위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지역 전반에 걸쳐 자동차산업에서부터 화학산업에 이르기까지 생산과잉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힘을 키워갈수록 이 열기는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이 지역의 의류산업과 완구, 시계제조업을 대체해가고 있으며 가전과 자동차부품 그리고 통신장비 분야에서도 더욱 강력한 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웃 나라들의 수출이 정체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1996년 상반기에만 26%의 수출신장률을 보였다. 더구나 이것은 설비가동률이 60%에 불과한 상태에서 일어난 현상이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외국 투기꾼들이 이 지역 통화위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지 소로스와의 같은 억만장자와 서방의 정치적인 음모가 개입되어 있

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두 신도시에 건설될 예정인 바쿰 댐과 같은 대규모 정부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식매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며칠을 못가서 그는 후퇴해야 했고 주식거래에 대한 제한

을 풀고 프로젝트의 무기한 연기를 발표해야 했다.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던 최상위 기업들은 지금 주가폭락으로 곤경에 처한 은행들로부터 채무상환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이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1987년 증시대폭락 10주년을 맞으면서

아시아의 위기가 세계자본주의를 흔들고 있다
1997년 10월 22일 - 11월 5일

지난 3개월 동안 동남아시아 경제를 집어삼키면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금융위기는 세계자본주의에 내재해있던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른바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리던 태국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취약한 모습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통화가치는 40% 가까이 하락했고 주식시장을 폭락했으며 성장률이 떨어지고 불황이 예고되고 있다.

각국의 금융제도는 불량채권의 산사태를 만나 붕괴 직전에 있다. 이 지역 금융의 중추인 싱가포르조차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위기는 지난 7월 2일 태국의 바트화의 요동과 함께 시작되었고 통화가치와 주식시장의 폭락은 이 지역 전체의 연쇄반응을 일으켰다. 불량채권은 태국의 91개 금융사 가운데 58개 회사들의 거래를 중단시켰다. 일본에 의한 IMF의 170억달러 구

모의 강제금융도 경제위기를 제압하기에 는 역부족이다.

인도네시아는 가장 최근의 피해자이다. 지난 3주 동안 미국 달러화에 대한 루피아화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푸어즈가 인도네시아의 등급을 하향 조정한 월요일에는 통화가치가 8%나 더 떨어졌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550억 달러의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을 중단하면서 IMF의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10년전인 1987년 10월 20일에 전세계적인 증시폭락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고도 성장을 달성하고 있던 아시아 경제는 이윤시스템의 활동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저임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 나라들의 경제가 무역과 투자의 변동에 대해서 대단히 취약하며 연쇄된 불황을 맞게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1987년과 마찬가지로 경제전문가들은 지금도 모든 경제 기초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지배층들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경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번 주 홍콩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한 보고서는 태국의 부동산 부문의 포화상태를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자체를 해체시킬 지도 모르는” 엄청난 재앙으로 기술하고 있다. 미국측 참가자인 루디 돈부쉬는 단기적인 대안에 관한 토론에서 아시아 경제가 ‘지속적인 축소’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성장이 3분의 1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자본들이 동남아로 몰릴듯이 밀려와서 저임금과 참담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착취에 열을 올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제 다른 곳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더욱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한 투자의 방향은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동유럽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도 결코 경제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중국의 국영기업들과 주요 은행들은 대부분 기술적으로 보면 이미 파산한 상태이다. 중국의 중앙은행은 이미 회수불가능한 2천5백억달러의 불량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홍콩의 포럼에서 돈부쉬는 중국이 앞으로 3년 안에 빠져나올 길이 없는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적인 시한폭탄

아시아의 기적이 해체되고 있는 과정은 한때 잘 나가던 경제가 정반대의 상황으로 뒤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순간에 ‘호랑이 경제’들이 불구가 되어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태국의 1998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인도네시아는 1.5%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필리핀과 태국, 인도네시아, 이 아세안 3국은 지금 IMF의 긴축계획의 대상이다. 태국 정부는 1997-98년 예산의 16%를 감축했으며 57억달러의 공공지출을 포기하면서 세금을 인상했다. 이로 인한 부담은 수입상품의 가격폭등으로 이미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 노동계급과 대중들에게 떨어질 것이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와 유사한 조치들은 약속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동남아시아의 공장으로 몰려 들어갔던 수백만의 젊은 노동자들이 실업자의 처지에 놓일 것이고 가난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이번의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에도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항하는 파업과 단체행동이 끊이지 않았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IMF의 조치에 항의하는 파업과 항의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달 해고 노동자들이 방콕 거리로 나와 “IMF에게 NO라고 말하라”(Say no to the IMF)고 쇠인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번 주에는 인도네시아의 국영 항공기

제작공장의 노동자 수천명이 작업을 멈추고 대량해고 계획에 항의하면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자들의 집단행동 외에도 정치적인 긴장이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이미 불신임 투표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이번 주에는 IMF 지원협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아마르 실라온이 '정치적인 갈등'을 암시하면서 사임을 발표했다.

시장의 무정부성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조지 소로스과 같은 서방의 투기꾼들과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음모가 경제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말레이시아의 링깃화는 25% 하락했으며 주가지수는 48% 떨어졌다.

마하티르는 생활수준의 저하와 경제불안의 책임을 죄을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이다. 1930년대에도 경제공황의 진짜 원인이 자본주의 자체에 내재해 있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반유대주의를 동원한 인종주의적 선동들이 있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제위기는 서방의 정치 음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정부에 대해 철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 자본시장의 무정부성의 결과이다.

지난 20년 동안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은 수십억 달러를 세계의 어느 한 곳에 투자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전지구적인 시장을 창출시켰다.

인터넷서널 헤럴드트리뷴의 사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뉴욕타임즈의 해외기고자인 토마스 프리드만은 루빈 미국 재무장관이 마하티르에게 보내는 가상 편지를 통해 20세기 자본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다.

"세계화(globalisation)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현실이야. 오늘날에는 하나의 세계시장이 있을 뿐이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지구적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당신네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전지구적인 무역체제 속에서 파는 길밖에 없어. 그리고 세계화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진실은 '책임은 누구에게도 없다는 거야, 이 멍청아!' 세계시장은 인터넷과 꼭 같아. 매일매일 이 시장은 확대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우리들을 더 강력하게 엮어나가고 있어. 책임은 누구에게도 없어. 조지도 아니고 '빅브라더'도 아니고 또 나도 아냐. 내가 이것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나나 당신이나 이걸 멈출 수도 없어……"

"오늘날의 세계시장은 익명의 주식과 채권 그리고 통화거래자들이 컴퓨터 스크린 뒤에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전자시대야. 당신은 나를 전지전능한 미국의 재무장관으로 알고 있겠지. 하지만 무하마드, 나도 당신과 똑같이 투기꾼들의 테러 위협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 내 책상 옆으로 매일매일 부메랑이 왔다 갔다하는 생활을 되풀이하고 있잖아!"

요컨대 세계시장은 조지 소로스나 로버트 루빈, 혹은 다른 누구의 희망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냉혹한 법칙을 따를 뿐이다. 그리고 여기에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역사적인 위기가 가로놓여 있다. 지구화된 생산과 금융이 국민국가에 기반에 경제규제 시스템을 파산시킨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월스트리트의 주가가 폭락했을 때는 미국의 연방은행과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협력해서 국제금융시스템의 파국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진행된 거대한 규모의 전지구적 금융자본의 성장은 어떤 금융위기도 통제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새로운 격동기

1987년의 주가폭락 사태가 자본주의의 기초를 뒤흔든지 10년을 경과하는 동안 훨씬 더 막강한 금융지전의 무대가 성장하고 있었다. 월스트리트가 가파른 오르막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본국의 지배계급들에게 대단히 불길한 예감을 갖게 하고 있다. 미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앨런 그린스펜은 최근 주가가격이 예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기대기업들의 공포심을 드러냈다.

1987년의 사건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사이의 무역장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는 혼

돈의 시대가 개막했음을 알렸다.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서 통화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취한다면 1990년대 초반의 경우와 같은 전세계적인 경제침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속되는 경제불황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다운사이징을 낳고 있다. 오늘날의 기업들은 성장과정에 있든 아니면 축소과정에 있든 구분없이 끊임없는 고용축소와 임금과 근로조건의 하향을 통해 이윤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백만의 정규직 일자리들이 파괴되고 저임금의 파트타임, 계약직, 임시직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다.

1987년에 일본만큼은 금융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예외적인 현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일본의 주식과 자산 시장은 얼어붙기 시작했고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동경은 은행대부부에 있어서 최대의 단일 투자자이자 공급자로서 이번 동남아시아 주식시장 붕괴와 통화폭락 사태의 최대 피해자이다. 금융불안과 시장상실이 일본경제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던 기왕의 예측들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1천억달러 규모의 아시아 통화기금을 조성할 것은 제안한 일본의 요청은 미국과 유럽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자국의 경제문제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각국들은 세계경제 전반의 문제에 눈돌릴 여유없이 아시아의 통화위기를 자신의 이익

을 확보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유럽은 사상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독일의 실업자수는 9월 현재 450만에 달하고 있으며 11.7%에 달하는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19.2%에 이른다.

유럽의 경우는 단일통화 창출을 둘러싸고 각국 정부들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합의한 엄격한 재정원칙을 충족시키는 문제를 놓고 역내 국가들간, 그리고 국가 내부적인 정치적인 긴장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정치 사회적 양극화는 전례없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첨예하게 만들고 있다. 회사 중역들의 소득은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반면 수십만의 국민들은 모든 형태의 복지혜택을 박탈당할 위기에 몰리면서 주변부의 저임금 노동에 근근히 연명하고 있다.

앞으로 주식시장의 붕괴가 발생할 경우 그것의 피해는 미국과 다른 지역의 수천만 노동자들에게 떨어질 것이고 그들의 퇴직연금 기금들이 주식과 채권 가격의 상승을 위해서 소진될 것이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구소련이 해체되자 전세계의 부르주아 평론가들은 시장의 승리를 역설했다. 그러나 한 세기가 막을 내리고 있는 지금 자본주의의 이윤시스템은 그것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는 광범위한 정치경제적인 혼란과 대대적인 계급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진행과정이 개량주의의 기초가 되어 온 국민국가와 그 정부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운동은 국제적인 전방축에서 새로운 대응과 전망을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위기가 한국과 일본을 덮치고 있다

1997년 11월 26일 - 12월 17일

한 국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융 혼란과 부도사태는 최근의 주가폭락 사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심화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주식과 통화 가치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은 금융과 생산의 전지구적

인 통합이 세계 어느 지역도 이와 동일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저임노동력의 집결지인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이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으며, 이제는 세계 11번째의 경제국가인 한국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일본이 지

복되고 있다.

이번 주 미국 달러화에 대비한 한국의 원화 가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IMF의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나섰다. IMF의 지원규모는 약 50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는 최근 IMF가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지원한 금액의 2배에 이른다.

올해 초에 한국의 통화는 20% 하락했고 지난 주에는 5%가 다시 떨어져 1달러당 1000원을 웃돌게 되었다. 금융분석가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달 원화를 방어하기 위해 10조원을 방출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한국의 상업은행들은 3조2천4백만원(47억달러)에 상당하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떠안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부도를 맞은 재벌들에게 대출된 것이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15억달러의 저리융자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기업들의 추가부도의 위협을 맞고 있다.

일본에서 열번째로 큰 홋카이도다쿠쇼쿠은행의 파산은 최소한 3천5백억달러의 불량채권을 안고 있는 일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 월요일, 개입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고 금융시스템의 추가동요를 막기 위해 820억달러의 특별융자를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주 15,500선 이하를 기록한 다키기 225 주가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은 다수의 일본 은행들과 보험사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더 많은 지역은행들이 파산을 맞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에만 벌써 8개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부도를 맞았다. 산와은행의 수석자문위원인 미츠크 사이토는 "일본 중앙은행은 다른 은행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논평했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반의 주식투기와 부동산 버블의 붕괴 이후 불황으로 늪으로 빠져들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일본 경제는 2.8%의 성장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1974년의 오일쇼크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깊어지고 있는 일본의 위기는 미국을 위시한 세계경제에 대해 심각한 의미를 던지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으며 2천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와 대규모의 연방정부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아시아 자본의 유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대형 투자자들이 부채상환과 투자불안에 직면해서 미국 주식과 채권시장에 쏟아부었던 수천억달러의 자금들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월스트리트에 극심한 폭락사태가 닥칠 수 있다.

영국 대기업들의 대변자인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난 화요일 "문계요인들이 금융제도의 수직적인 연쇄고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국제시장 전반으로 위기가 확대되고 세계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1930년대의 대공황이 지역 차원에서 재연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신

규시장에서 경쟁적인 가치하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 2위의 일본 경제가 악화일로의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는 장기간의 과잉생산과 디플레이션적인 금융악순환 그리고 점증하는 무역전쟁의 신호들 속에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기업들의 고용감축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기업들의 다운사이징과 고용감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스턴 코닥사가 1만명의 인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레비스트로스가 6,400명의 인원감축을 발표했고 제너럴 모터스는 미국과 유럽에서 수천명의 인원감축을 통해 30억달러의 비용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과정은 비단 미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가들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고용조건을 공격하는 동일한 경쟁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일본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인 토요다는 태국의 조립공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로 인해 약 4,7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한국에서는 재벌의 도산과 금융권의 영업정지로 수만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영국의 유리제조회사인 필킹톤은 6,000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최근 미 의회에서 '신속타결' (fast-track) 법안을 통과시키려던 클린턴 행정

부의 노력은 미국의 지배집단들이 경제적인 민족주의와 보호주의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법안의 통과는 비록 좌절됐지만 최근의 상황은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의회가 무지막지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켰던 1929년의 대공황의 시대와 너무도 흡사하다. ◆